

여름철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 유지

-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안정세 지속(전년동월대비 0.6% ↑)
- 수급 불안 가능성 있는 배추 등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통해 소비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 제공
- 원재료 구매 자금 지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가공식품·외식업계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6% 상승(전월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름철 잦은 강우,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할 경우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전월대비 변동 없음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봄배추, 봄무, 양파 등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8% 하락(전월비 2.4% 하락)하였다. 특히, 당근, 양배추, 대파 등은 여름작형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늘은 '24년산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25년산 생산량이 전년비 4.6% 증가하였고, 현재 수확 후 건조하여 깎마늘로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농작물은 기상 변화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여름철에 고온이 지속되거나, 강우가 집중 될 경우 작황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특성(호냉성)이 있어 생산량의 변동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장 가격이 급등락 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물량(정부가용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 배추 정부가용물량 : 35.5천톤(비축 19, 출하조절시설 8, 유통인 출하약정 7 등)

오이·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6월 상·중순 잦은 강우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 일조량이 충분하여 생육도 회복 추세에 있다. 사과·배 등 과일류도 지난해보다 저장량이 많고 금년산 작황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해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영양제·약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3% 상승(전월비 1.3% 상승)하였다. 한우 공급량이 평년보다 많은 상황이며, 국내 돼지 도축마릿수도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우 도축(1~6월): (평년) 409천마리, ('24) 477 → ('25) 458 (평년비 12.0%↑, 전년비 3.9%↓)

** '25년 상반기 국내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비 2.6% 감소, 하반기에는 2.1% 증가 전망

계란은 방학·휴가 등으로 소비가 감소해 7월~8월에는 가격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병아리 입식 증가*로 9월 이후에는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여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3~5월 중 병아리 평균 입식 마릿수(487만마리)는 '24년 평균(446만수) 대비 9.2% 증가

닭고기는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수입이 재개(6.21~)되고, 7월 하순부터 대체 수입국인 태국산 닭고기가 국내에 공급되면서 수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요가 많은 여름철 휴가철(7.17~8.6)을 맞아 정부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구매시 최대 4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할인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한우 : (온라인 한우장터) 7.7.~7.13, (농협 하나로마트) 7.18.~7.25, (대형마트 등) 7.30.~8.10
한돈 : (기간) 6.30.~7.20.(업체별 상이), (품목) 삼겹살·목살, (할인율) 약 20% 내외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기업의 경영비 부담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4.6% 상승(전월비 0.3% 상승)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원재료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기존 1,056억원 → 추정 +200억원)할 계획이다.

* 적용기간 연장('25.6.30→12.31) : 으깬파인애플, 으깬감귤류, 과일카테일, 기타단일과실주스 / 물량 확대 : 과일카테일(5천톤 → 7), 계란가공품(4천톤 → 10)

외식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전월비 0.2%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건 완화,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등과 함께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통해 외식 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 할인쿠폰 지급(650만명, 6.10.~ 예산 소진시)

농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인정적인 공급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통해 주요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하여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681)
		담당자	서기관	김성만 (044-201-2685)
<식품>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해인 (044-201-2684)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2111)
<외식>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윤식 (044-201-2123)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2151)
<축산물>	축산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박춘규 (044-201-2157)
		책임자	과 장	이연섭 (044-201-2331)
<채소류>	원에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승 (044-201-2336)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1-2231)
<과일류>	원에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1-2232)
		책임자	과 장	신지영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홍근훈 (044-201-2260)

참고

여름배추 재배 및 수급 특성

- (생육특성) 배추는 서늘한 기후(18~20℃에서 가장 잘 성장)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호냉성 식물 또는 저온성 식물로 분류
 -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작형으로 연중 생산되나 5℃ 이하 저온과 23℃ 이상 고온에서는 생육 저하
 - 여름철(7~9월)은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
- (재배여건) 여름배추는 토지임차료, 비료·농약비, 출하작업비 등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계절에 비해 50% 이상 높음
 - * 경영비/출하비(1망(10kg) 당) : (봄) 1,459원/1,735원, (여름) 2,415/2,502 (봄 대비 44~66%↑)
 - 해발 고도가 높은 고랭지지역 특성상 경사가 심해 농기계와 트럭 등 일반적인 장비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고, 작업 난이도가 높아 숙려된 인력 투입 필수
 - 폭염·폭우와 같은 이상기상, 연작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 등으로 작황 변동성도 커 재배면적 감소 추세
 - * 여름배추 재배면적 : ('10) 4,929ha → ('24) 3,747



봄배추 재배지(평야지대) 수확 작업

여름배추 재배지(고랭지) 수확 작업

수확 후 포크레인이 운반하여 상차하는 모습

- (수급특성) 봄배추(4~6월)에 비해 여름배추 도매가격이 약 50% 이상 높게 형성되며, 김치업체 등 시장 주체들도 이를 인지
 - * 평년기준 작형별 평균 도매가격 : (봄) 2,917원/포기, (여름) 4,563, (가을) 2,221, (겨울) 2,578
 - 여름배추는 주로 김치업체에서 사용, 김장철(11월순~12월상순)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배추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여름배추는 봄배추와 재배 및 수급여건이 다르므로 수급 동향 및 가격 비교는 전년 또는 평년과 비교해 객관적 정보 전달 필요